

보도자료

보도일시	[지면보도] 2023년 11월 4일 (토) 조간부터 [인터넷 기사] 2023년 11월 3일 (금) 16:00 이후 가능
담당자	[연구 관련]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대표이사 (041-552-2866, len@len.or.kr) 김홍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 (044-287-6404, hjkim88@kli.re.kr) 오현지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팀 (044-287-6903, dhkt5357@kli.re.kr)
배포일시	2023년 11월 3일 (금) 11:30

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따른 고용효과

- 본 연구는 공유미용실 정착을 위한 제도화가 미용사의 고용과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,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향 및 정책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

1. 공유미용실의 현황 및 이슈

- 삶의 질 개선에 따라 미용에 관한 관심과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미용산업은 급성장 해왔음
 -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두발미용업
 - 사업체 수 : 2010년 79,535개 → 2019년 105,020개
 - 종사자 수 : 2010년 120,322명 → 162,257명
- 그러나 미용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일자리의 질, 미용사 간 소득 격차, 도제에 의한 숙련 형성에 따른 부작용(부당 노동행위) 등의 내생적 문제들이 발생함
 -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유미용실이 논의되고 있음

- 공유미용실은 다수 미용사가 1개 미용실에 입주하여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공유하는 사업형태를 의미함
- 공유미용실 입점 미용사들은 미용 시설 및 장비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

○ 그러나 현행 ‘공중위생관리법’ 제2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미용 시설 및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, 공유미용실 운영이 불가능함

2. 공유미용실의 고용 및 소득효과 분석

- 공유미용실의 고용효과 및 소득효과에 대한 계량분석,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,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
 - 첫째, 공유미용실의 운영비와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적어, 일반 미용실 미용사와 공유미용실 미용사 간의 소득차이는 축소됨
 - 둘째, 일반 미용실을 운영할 때 보다 공유미용실 입점 후 매출액은 다소 감소하나 고정비와 운영비의 감소로 오히려 미용사의 소득은 증가함
 - 셋째, 공유미용실이 제도화된 후 3년 후 현재보다 자영업 미용사는 8% 증가하고, 전체 미용사의 월급은 현재보다 46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넷째, 설문조사 결과 미용사들은 공유미용실이 제도화되어 정착될 경우, 미용사의 고용안정 개선, 소득수준 향상, 직무만족도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함

- 전반적으로 공유미용실이 제도화되면 미용산업의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
- 다만 제도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

3. 정책적 제언

- 미용사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
 -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현장 경험없이 공유미용실로 입점할 경우, 충분한 숙련형성이 되지 않아 미용서비스의 질적 하락 가능성
 - 미용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자영업 미용실 자생력 강화를 위해 미용사의 교육훈련이 중요한 만큼,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체계 마련이 필요
 -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한 미용재직자 훈련을 확대하고, 훈련참여가 어려운 자영업 미용사를 위한 온라인 훈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
 - 미용사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, 미용사의 구인구직, 미용실 임대 정보, 미용 제도변경사항, 온라인 훈련 및 훈련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음
- 공유미용실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
 - 공유미용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로 임차인인 미용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
 - 미용사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수행할 것이나, 공유미용실 계약에 대한 악용일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적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

4. 결론

- ICT 기술의 발전, 공유경제의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역시 공유미용실 제도화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임
 - 따라서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하고,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
- 공유미용실 제도화가 미용사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제로섬(ZERO-SUM) 게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
 - 실제 공유미용실 미용사의 소득효과는 타 미용실 고객 유치에 의한 결과가 아닌, 고정비와 운영비 절감에 의한 효과라는 점은 공유미용실 제도화가 미용사 전체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. 끝.